

같이! 그 이상의 가치



□ 개요

- 기관명 : 울산동구노인복지관

<수혜기관 현황>

- 설립목적 :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개발 증진 및 사회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종합적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
- 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6길 33
- 인원현황 : 근무인원 16명, 수혜인원 80여명
- 일 시 : 2019.12.05.(목) 16:30~18:30
- 내 용 : 울산 소재 유관기관과 함께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겨울철 방한용품 및 식자재 지원
- 참석자 : 회계운영실 직원 4명
KEB 하나은행 동울산지점, 석유공사 출장소 20명
- 작성자 : 회계운영실 대리 이정현

□ 내용

- 매서운 겨울 바람이 콧잔등을 스치던 지난 2월, 우리는 정들었던 용인 수지의 사옥을 뒤로하고 새로운 보금자리인 울산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사실 저는 올 1월 회계운영실로 발령을 받고 유관기관인 수지의 은행 직원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지 채 2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 하나 둘 울산으로 업무 이관이 마무리 되고 우리도 울산생활에 차츰 적응해가고 있을 무렵 부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없는 지원부서는 사업과 연계할만한 것들이

없는데 쉽지 않네요.’ ‘쉽게 청사환경 미화해요!’ 여러 부서원들의 생각처럼 지원부서에서 부서 업무와 연계한 사회공헌을 실시하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안녕하세요~ 대리님’ 출자증권 기탁업무 때문에 한달에 한번 꼭 만나게 되는 하나은행 부장님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그래 같이 다!’ “부장님 우리 같이 사회공헌활동 하는게 어때요?” “사회공헌이요? 같이 하면 더 좋지요!”

- 막연하게 함께하겠다는 계획만을 가지고 하나은행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추운 겨울 어르신들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하나은행에서 다행히 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해주었고 각자 어떤 물품이 가장 좋을까 머리를 짜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기모 양말을, 하나은행은 복지관 내 급식소에서 겨울철 어르신들의 보양식에 사용할 식료품과 후원금을 준비하였습니다.
- 이번 사회공헌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라고 제게 묻는다면 바로 복지관 국장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입니다. 준비한 물품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우리의 말에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양말이에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그러면 체온조절이 힘들어집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리기 쉽지요.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져 손발이 찬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양말 이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주셨어요.**” “그리고 울산 이전 후 첫째 사회공헌 기관이 우리 기관이라니,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 기존의 우리 공단의 봉사는 시료품 지원 중심의 활동이었습니다. 물론 값지고 귀한 물품이지만 어찌보면 수혜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생각에서 비롯된 지원이었던지도 모릅니다. 노인이라는 수혜

대상을 세심하게 살핀 다음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하고 필요를 채우는 활동, 진정한 사회공헌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절기를 맞이한 에너지절약 방안 용품이라니, 이번 회계운영실의 사회공헌 활동은 **수혜자를 생각한 배려심**뿐만 아니라 **우리 공단의 전문성**까지 살리는 **남다른 감수성이 돋보이는 활동**이 아니었을까요?

- ‘새로 오신 선생님인가봐.’ ‘아니에요 어르신 자원봉사 오신 선생님이예요.’ ‘아이고 오랜만에 외부사람이네’ 저녁 나눔이 끝난 급식소 뒷정리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며 한 어르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울산 동구의 복지시설 후원에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의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두 기업이 최근 경영난을 겪으며 주변 복지시설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선물처럼 나타난 것이 우리라고 하니, 공공기관들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지역의 복지시설을 방문하고자했던 우리의 계획이 아주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공급자에게는 많은 기관 중에 하나였지만 수혜기관에게는 큰 의미가 되는 것 보며 정확한 목적을 가진 사회공헌 계획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원물품 기증 인증사진>

<노력봉사 활동 현장>

* KEA, 울산동구노인복지관, 하나은행 순

지역 복지시설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역 내 기업들이 힘을 합친 아름다운 ‘동행’**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처럼 활동의 좋은 성과에는 반드시 조직적 뒷받침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울산동구노인사회복지관에 따듯한 나눔을 할 수 있었던건 두말할 것 없이 KEB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에 기대 바가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역할 분담, 원활한 상호소통, 서로에 대한 신뢰 위로 우리가 만든 건 **상상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지역복지의 현장**이었습니다.
- ‘부장님 우리 내년에는 연초부터 기획해서 함께 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을거 같아요!’“ 유관기관과 같이한 행복한 동행 덕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날이었습니다.
 - 에필로그 : 동구의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싶으시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울산동구노인복지관과 장애인 재가시설인 울산참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물품지원과 노력봉사를 한다면, 작은 물품이더라도 수혜자의 실제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물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수용비! 우리가 조금만 아껴쓰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값진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 “**절전지훈**”, ‘여럿이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지역 경기 불황으로